

# “살아생전 전범기업 사과받게 해 달라”

광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첫 변론  
피해자·가족 기자회견 빠른 판결 촉구  
재판부 선고 2주 앞당겨 12월5일 선고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등이 지난 31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지난 3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만난 김재립(88), 양금덕(87) 할머니는 서로 두 손을 꼭 잡은 채 바깥을 나와 대화를 나눴다.

두 할머니는 전날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내용 등을 이야기하며 “이번 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이날은 지난 2014년 2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번째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원고 김재립 할머니와 1944년 도난카 이 대지진으로 공장 건물터미에 깔려 숨진 고(故)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 양영수(88)할머니의 딸 김정숙씨가 참석했다. 심선에(88) 할머니는 건강상을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다. 1차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김 할머니 등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고법을 찾아왔다.

1심 재판부는 오철석씨에게 1억5000만원,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에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측은 판결에 불복, 지난해 8월 항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사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원고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인 만큼 빨리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

다. 살아있는 동안 (재판부가)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오철석씨도 “제가 벌써 83세가 됐다. 누나뻘 되는 원고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다. 현재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게 다행일 정도”라며 “빠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규 판사는 “국제성당물 시간이 지연돼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이 지났고, 전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 역시 (이번 소송처럼) 기망, 즉 속여서 피해자들을 징용했다는 점이었다”며 신속하게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1차 공판이 끝난 뒤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유족, 시민단체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들의 연령은 90세 전후”라면서 “전범기업들은 더 이상 사법절차 뒤에 숨어 시간을 끌지 말고 원고들과 화해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인 이상강 변호사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 양국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 등을 통해 가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이나 제3국에서 집행문을 받아 가해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숙(86) 할머니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3세)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 이경자(74)씨가 제기한 3차 소송은 2일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00 l 종량제 봉투 없애고 음식물 수거함 축소

## 눈길 끄는 광산구 환경미화원 배려 정책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과 신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 l 들이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한 광산구 광산구가 음식물 수거함 무게도 줄인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을 배려한 정책으로 타 지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산구는 31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미화원 부상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5 l 짜리 단독주택 및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신설하기로 했다.

15 l 수거함을 도입하면 현행 최대 용량인 20 l 짜리는 점차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 표준과 현장 실측치를 토대로 수거함

부피가 5 l 만 줄어도 무게는 10kg가량 가벼워질 것으로 예측한다. 20 l 수거함 무게는 평균 30kg이다.

주민 의견수렴과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앞서 환경미화원 직업병 예방을 위해 최근 100 l 들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75 l 짜리로 대체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00 l 짜리가 25kg, 75 l 짜리는 19kg이다.

이미 제작된 100 l 종량제 봉투는 재고 물량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판매한다.

환경미화원은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골절·과열·염좌·타박상·배인·찢김 등 여러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광산·최승렬 기자 srchoi@

##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 수입·사용 허용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직접 해외에서 처방받아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환자는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 통관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 중인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도선관위, 현직 군의원 등 5명 선거비용 불법지출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완도군의원 선거에서 군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 원을 허위기재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220여만 원을 회계처리 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800만 원보다 304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

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 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 원에 대해 고의로 적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 C씨와 E씨는 낙선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 제공·매수 행위·정치 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히 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도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30% classical + 20% jazz + 15% folk + 15% pop + 15% latin + 5% others

PHILHARMONIX  
2018 필하모닉스 내한공연

베를린필·빈필 단원으로 구성된 경이로운 앙상블

광주일보 창사 66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Philharmonix) 베를린 뮤직 클럽' 공연을 개최합니다. 베를린 필 악장 노아 벤딕스-발글레이, 필리 페리니(비올라), 스테판 콘츠(첼로/베를린 필), 라오스(더블베이스/빈 필 수석), 다니엘 오텐장머(클라리넷/빈 필 수석), 크리스토퍼 트락슬러(피아노) 등 7명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 이번 공연에서 정통 클래식과 팝송·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연주 레퍼토리는 프랑스의 '헝거리 무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록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스티브 '잉글리시맨 인 뉴욕' 등입니다. 클래식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18.12.17 [월] pm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티켓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 예매 리켓링크 1588-7890 문의 062-220-0541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달름	--:--
해질	17:38	달진	22:15

체감온도 '뚝'...초겨울 날씨  
평년기온 밑돌아 낮에도 쌀쌀하겠다.

광주	맑음	5/16	보성	맑음	2/16
목포	맑음	7/16	순천	맑음	6/17
여수	맑음	7/17	영광	맑음	4/16
나주	맑음	2/17	진도	맑음	6/15
완도	맑음	7/17	전주	맑음	3/15
구례	맑음	2/18	군산	맑음	3/16
강진	맑음	4/17	남원	맑음	1/16
해남	맑음	3/16	흑산도	맑음	11/16
장성	맑음	3/1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1.5

◇ 물때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0:38	07:35	12:44	20:32
	08:37	02:28	22:15	15:35

◇ 주간 날씨

날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날씨	☀	☀	☀	☀	☀	☀	☀
날짜	5/18	6/18	7/19	7/19	9/18	9/18	9/17

◇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보통